



여성 감염인의 유일한 쉼터, 새빛공동체

클_알_레스 · 수녀/여성섬터 대표

▲ 새빛공동체 거실

여성섬터에 온 모든 사람들은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병이 진행되어 기운이 없거나, 퇴원하고 갈 데가 없어 오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임신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 세계 에이즈 예방 캠페인 주제는 “여성과 에이즈”였다. 한국에서는 HIV에 감염된 여성들이 많이 없다고들 한다. 글썄,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염된 여성들을 위한 특별 시설이나 혜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도 많은 경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여성들은 약한 처지, 취약한 상태로 살고 있다. 더구나 가족이 가난하면 그 가족과 사는 여성들은 더욱 어렵다.

우리는 흔히 남성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무시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비람을 피우면 사회가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여성이 한 번만 실수해도 손가락질 받고 가족한테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자기의 모든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는데도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

또, 요즘은 노숙자 수가 많아지고 여성 노숙자 또한 증가하면서 이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서 있는 여성이 HIV에 감염되면, “철상가상”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HIV에 감염되면 육체적인 고통이 비슷하다. 남자인 경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여성은 더 심각하다. 여성은 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이 되면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거쳐야 하는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간호사와 의사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상당히 불안해 한다.

저기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아기가 양성이면 감염된 엄마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 엄마는 자기 병에 대한 걱정보다 아기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엄마가 직접 약을 먹는 어려움보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스트레스가 많다.

또 아기가 음성인 경우 전혀 다른 걱정이 있다. 특히 학교에 가게 될 때, 아이 부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일- 손가락질, 차별 대우, 거절, 외면 같은 일-을 당할까봐 늘 걱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여성들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다.

때때로 여성의 집에는 아기도 온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기쁜 일이다. 여성의 집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 신생아가 왔다. 아기가 오는 날부터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데리

고 있고 싶지만 우리 집에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고 있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을 한다. 아기는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감염되
지 않은 것이다. 아기는 태어날 때는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다. 생리적으로 아기는
엄마에게서 항체를 받기 때문에 HIV 항체검사는 보통 양성이다.

그러나 육개월 후부터는 엄마한테 받았던 항체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
터 엄마와 우리 식구들 모두 음성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한 달에 한번 엄마와
우리는 아기가 검사하는 아픔을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하며 기다
른다. 양성 결과가 나오면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기가 어렵다. 아기를 키우게 된 보
모든 입양시켜야 하는 부모든 여성의 집 식구들 모두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한다.

또 좋은 소식이 나올 땐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번
여자가기도...' 불안 중 아주 기쁜 소식은 우리 여성의 집을 거쳐 간 아이 모두 음
성이었다는 것이다.

여성쉼터에 온 모든 사람들은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병이 진행되어 기운이 없거나, 퇴원하고 갈 데가 없어 오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임신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와 우정을 나누면서 상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 하고 이해를 주고받고 또 잘
먹고 잘 놀면서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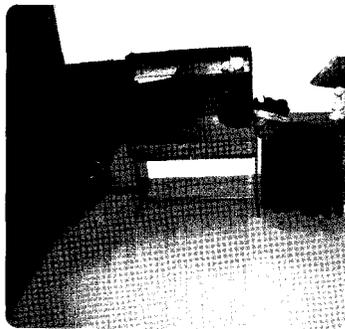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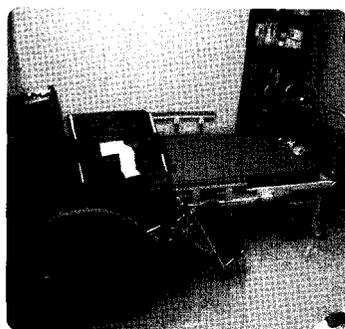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여성은 수술하고 나서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코로 호스를 넣어주셨다. 그러한 상태로 퇴원하고 여성의 집에 왔
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간 상태를 보고 호스를 뺄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여성의 집에 와서 우리가 호스로 열심히 음식을 먹여드렸지만 그녀는 먹는 맛
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여성의 집 간호사가 일으로 살짝 음식을 넣어드리자 먹
기 시작했다. 얼마 있다 우리가 그 답답한 호스를 빼자 얼마나 잘 먹던지. 병원에
가기 전에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 했다. 의사 선생님은 호
스를 뺄 것에 놀라워했다. 고기 먹은 것은 고백했지만 술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미가 있어야 회복이 빠르다. 희망이 있어야 의지가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야만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은 자비하신 하
느님, 절대지가 아닐까?

※ 쉼터입소 문의 | 02)2675-4111



▲ 위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방, 감염인
방, 주방